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2013년도 표어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마 25 : 40, 레 19 : 18)

행동지침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558-2107 http://seoulchurch.or.kr

에스더서 강해

### 위대한 회복과 부흥을 위한 피날레

(에 9:20-10:3)

### A Grand Finale for Recovery and Revival

(Esth. 9:20-10:3)

성경 전체를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패턴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성경말씀을 통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주시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누리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므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인정받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과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마음껏 그 응답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바로 이런 패턴을 통해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과 야곱도 그랬고. 요셉과 모세와 욥이 그랬습니다. 이밖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인물들이 고난을 지나고서야 승리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개와 에스더는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인내하며 나아가갈 때 마침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해방과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만물과 온 인류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신 작가지입니다. 오직 그 분만 아시는 이야기를 통해 가장 큰 기쁨과 행복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가끔은 너무나 무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나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드라마는 위대한 반전으로 인해 완성되는, 그래서 더욱 놀랍고 위대한 회복과 부흥의 드라마입니다.

에스더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길 것은 ‘에스더서의 그 위대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곤고해지고, 건강으로 인해 혹은 관계로 인해 마음이 한없이 바닥으로 추락할 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회복과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When we study the entire Bible, we are clearly able to understand the pattern that is worked by God.

The first is God’s covenant. This is given by the word in the Bible to our daily life. The second is what God must train us before we enjoy God’s covenant and blessing. Lastly, by holding God’s word and enduring to the end, when God acknowledge your spiritual ability. God really permits blessing on you and lets you enjoy his glory as much as you like.

We can know that all people appeared in the Bible had the victory through the pattern as stated above. Abraham had the victory and Isaac, Jacob, Joseph, and Moses did too. Above these people, we never forget that after a number of people overcame sufferings, they had a victory.

Esther underwent such a thing. Even though Mordecai and Esther were slaves, they strongly believed God’s covenant, endured, and proceeded forward. Consequently, God recovered Jerusalem and gave them liberation and freedom.

God is an author who knows the beginning and ending of all things and mankind. He is weaving the story that he knows alone in order to give us the greatest joy and happiness.

However, we sometimes feel that such a God is too negligent to take care of us. Even then, we must trust in God who is much wiser and greater than us. This is our faith.

God’s drama is accomplished by the complete reversal, which is the drama of the recovery and revival that is much more wonderful and greater than any other th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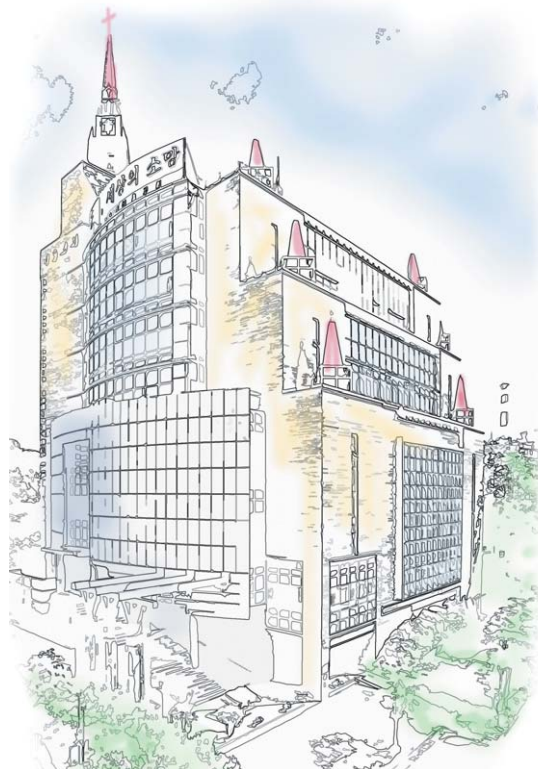
Finishing the Book of Esther, the thing that we deeply engrave into our heart is “The history of Esther’s wonderful recovery and revival will be reproduced in our life of today as it was.

Even though our mind endlessly fall down by our life’s hardship, health, and relation, we must strongly hold God’s covenant given us, endure, and proceed forwards.

My beloved Christians,

The message that Esther gives us is very clear. God’s covenant is never changeable. Therefore, if we hold God’s word and endure endlessly, God will clearly answer by his way at his time, and give us recovery and revival.

By holding God’s word and living your life, I earnestly hope that you will have the victory for his glory as much as you please.



# 2013 흥해 작전

## “와서, 네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라”(출애굽기 4:20) 일시: 6월6일(수) ~ 25일(화) 새벽5시 - 본당

2013년 흥해작전이 박노철 목사와 박철현교수(총신대 구약학)의 인도로 6월 6일(목)부터 25일(화)까지 새벽5시에 본당에서 열린다.

서울교회 흥해작전은 주의 택한 이스라엘백성을 출애굽 시키시고, 흥해를 열어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합심하여 조국의 안전과 복음화, 서울교회와 한국교회의 부흥, 가정과 개인의 기도제목을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흥해도 믿음으로 건너고자 하는 “말씀과 기도운동”이다.

이번 흥해작전의 주제는 “와서, 네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라”로 말씀과 기도가 은혜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모든 성도들은 새벽을 깨우며 주님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강사: 박철현 교수**  
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구약학 조교수  
전)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구약학 조교수  
영국 글로스터셔 대학 구약학 박사(오전 전공)

### 흥해작전 기도제목

- 1. 우리에게 흥해작전을 허락하신 주님!**  
서울교회 모든 성도가-2013 흥해작전에 참여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앞에 놓인 흥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 2.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치 못하고, 세상의 분이 되지 못한 우리 자신과 교회와 민족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3. 말씀과 기도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더욱 든든히 서서 이웃의 등대·민족의 구원선·세상의 나침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어 약속하신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 4.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  
서울교회 모든 다음세대들이 부서벌 예배와 교육을 통해 말씀으로 양육받아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나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 5.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주님!**  
개인과 가정, 일터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응답해 주셔서 더 큰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 6. 한국교회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신 주님!**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 섬김과 희생의 길을 걸으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어두운 세상의 참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 7.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북한의 모든 위협이 사라지고, 약한 3대 세습정권이 무너지며,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속히 이루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의와 평강의 나라,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흥해를 건널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12대 장로 4명, 13대 집사 32명, 12대 권사 63명 피택 -5월19일(주) 공동의회에서-

지난주일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열린 항존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12대 장로 4명, 13대 집사 32명, 12대 권사 63명이 각각 피택되었다.(명단은 본지 3, 4면 참조) 또한 집사와 권사로 피택된 이들을 위한

당회주관 교육이 25일(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계속될 예정이다. 이번에 피택된 모든 이들이 교육과 훈련과정을 통해 주님의 귀한 종이 되도록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기 바란다.

## 2013 터키 성지 순례

### 9월 24일(화)~ 10월3일(목) / 박노철 담임 목사의 특강도

우리 교회는 9월 24일(화)부터 10월 3일(목)까지 9박 10일 동안 터키 성지순례를 간다. 소아시아 7교회와 사도 바울의 세계전도여행지를 중심으로 밤모섬까지 순례를 하게 된다. 성지를 순례하며 큰 은혜를 받는 것은 물론 성도들의 깊은 교제를 통한 쉼과 회복의 시간이 될 것이다.

특히 박노철 담임목사가 직접 인도하는 4번에 걸친 특강을 통해 더욱 알찬 성지순례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비용은 290만 원으로 국제 항공권과 터키 국내 항공권, 크루즈 및 최상의 호텔과 식사 등 일체 경비를 포함한 액수이다.

현재까지 61명이 등록하였고, 2차마감은 오늘까지 받는다. 등록비 20만원은 5월31일(금)까지 직접 사무국에 내거나 교회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하나은행 서울교회 215-196427-02404)



## 목사님, 궁금해요!

### 이종윤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89]

(문 88) 삼상18:10에 의하면 악령이 하나님으로 부터 사울에게 내렸다고 했는데 하나님으로 부터 오는것은 좋은것만 오는 것이 아닌지요?

(답) 하나님으로 부터 오는 것은 좋은 것 뿐이라는 말은 정확히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창1:31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였고 약1:13에서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이 상존하고 있고 하나님은 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도덕적 질서를 규정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으로서 죄에 대한 사랑과 동정심은 얼마나 크시지만 죄를 벌하실 필요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시45:7에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ra' 인데 이 말은 악(evil)을 뜻합니다. 도덕적 악 또는 재앙의 악을 말합니다. 고통스럽고 해로운 것으로 죄가 따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죄는 욕심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약1:14-15)

사울의 경우 그는 하나님의 법을 비웃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제사장 직분을 수행한 일과(삼상13:12-13) 아말렉을 멸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양과 소를 남겨둔 죄(삼상15:20-23)를 범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삼상18:8에서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백성들의 칭송을 받게 되자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죄들로 사울왕은 자신을 사탄의 영향권 아래 노출시킨 셈이 되었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기로 결심한 후 그가 행한 일과 같았습니다.(요13:2) 사울의 불순종은 그를 성령의 인도와 교제에서 부터 끊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법칙인 것입니다.

결국 절망은 질투를 낳고 질투는 불합리한 편집병으로 빠지게 한 것입니다. 그는 사탄의 사역자로 행동하고 있었지만 사울의 악의 경향성은 하나님의 계획과 허락 하에서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죄에 대한 별도 도덕법을 만드시고 옳은 일만 항상 행하시는(창18:25) 하나님으로 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음주 계속)

# 2013년 항존직 피택자 명단





## 피택장로

- |   |   |   |   |   |   |   |  |
|---|---|---|---|---|---|---|--|
| 1 |  | 2 |  | 3 |  | 4 |  |
|   | 송인권   |   | 이중만   |   | 오지열   |   | 안인호  |

## 피택집사

- |   |   |   |   |   |   |  |  |  |
|---|---|---|---|---|---|--|--|--|
|    |    |    |    |    |   |   |   |   |
| 1. 윤요섭  | 2. 손태현  | 3. 최성울  | 4. 이갑수  | 5. 전인상  | 6. 손용문  | 7. 박중권2  | 8. 주지흠   | 9. 이용성   |
|    |    |    |    |    |   |   |   |   |
| 10. 임경락   | 11. 송영준   | 12. 박흥래   | 13. 정진문   | 14. 박상훈   | 15. 이근대   | 16. 박중만  | 17. 이종열  | 18. 박광욱  |
|   |   |   |   |   |  |  |  |  |
| 19. 박찬양   | 20. 오상수   | 21. 장창수   | 22. 박정수1  | 23. 신태봉   | 24. 이근홍   | 25. 고윤상  | 26. 신삼철  | 27. 류상철  |
|  |  |  |  |  |   |  |  |  |
| 28. 최근보   | 29. 한선규   | 30. 심군섭   | 31. 최용준   | 32. 이근일   |   |  |  |  |

## 피택권사

- |   |   |   |   |   |  |   |   |   |
|---|---|---|---|---|--|---|---|---|
|  |  |  |  |  |  |  |  |  |
| 1. 최희희  | 2. 김숙자  | 3. 최세정  | 4. 권소희  | 5. 김화정  | 6. 최금숙   | 7. 선혜영  | 8. 유인순  | 9. 이귀숙  |
|  |  |  |  |  |  |  |  |  |
| 10. 아선자   | 11. 백기선   | 12. 황현숙   | 13. 이경실   | 14. 이화숙1  | 15. 노정숙  | 16. 한은미   | 17. 전관환   | 18. 이미송   |
|  |  |  |  |  |  |  |  |  |
| 19. 김복희2  | 20. 차인화   | 21. 김은희9  | 22. 정은순   | 23. 김지숙   | 24. 정승자  | 25. 박성미   | 26. 이정임   | 27. 이태인   |
|  |  |  |  |  |  |  |  |  |
| 28. 홍정란   | 29. 구연복   | 30. 나미경   | 31. 최희희   | 32. 김애자   | 33. 유기순  | 34. 김인영2  | 35. 박화실   | 36. 노진아   |



농촌교회를 돌아보며

#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살아있는 사도행전 29장



김정진 권사 (13교구 간사)

새벽 5시, 여명을 뚫고 한 분 한 분 모이기 시작했다. 서울교회 장로님들과 전국장로교연합회 회장 오정수 장로님과 강남노회 소속의 여러 장로님들, 13교구 교구장 조정식 장로님과 장석남 교구 목사님과 교구 임원들.

오늘의 첫 행선지는 전남 보성 에 위치한 노동교회(구구승 담임 목사). 전국장로연합회(이하 전장연)와 서울교회가 농어촌교회의 모델교회를 찾던 중, 마을 주민들을 위해 직접 농사일을 돕고 있는 노동교회에 마음껏 봉사할 수 있도록 트랙터를 구입해 기증하는 뜻 깊은 행사였다. 5시간 여를 달려 도착하니 아담하고도 깔끔한 교회에는 동네잔치가 준비되고 있었다.

구구승 담임목사와 성도들, 온 마을 주민은 물론 보성군수와 부총회장, 노회장 등의 교계안팎의 지역 유지들이 모여 감사예배를 드린 후 트랙터 기증식을 하고 이 행사를 총지휘한 오정수 전장연 회장 장로님과 서울교회에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트랙터는 전국 장로회연합회(회장:오정수장로)와 오정수 장로가 3,500만원, 서울교회(박노철 목사)가 1천만원을 각각

후원해 5천만원 상당의 트랙터를 전국장로연합회, 서울교회 공동 명의로 후원해 기증하게 되었다. 트랙터가 일손 부족한 농촌에 받을 가는 것은 물론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을 갈아 영육이 풍성한 노동교회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하며 다음 행선지로 출발.

1시간 여 달려서 강진에 있는 강진반석교회에 도착했다. 태풍으로 교회가 유실돼 다시 건축하던 중 예산부족으로 중단된 안타까운 사연이었다. 온 교우들이 마을 곳곳을 다니며 폐지와 빈병, 플라스틱 등의 재활용물자를 수거해 한 푼 한 푼, 그야말로 티끌모아 태산식의 헌금을 모으고 있었다. 폐물품을 수거하다 얼굴에 작은 상처가 난 권사님의 눈물 속에는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는 마르다의 헌신이 보였다.

13교구에서 지난 2월에 실시했던 ‘루치아노 최 바자’로 모은 기금과 서울교회의 헌금을 전달하면서 이를 통해 반석교회가 다시 이 땅에 반석처럼 든든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렸다. 차창 밖에 하얀 이팝나무가 즐지어 서 있는 김해 시로 진입, 진영 생명숲교회로 향했다. 본 교회 부목사로 시무하시던 노현상 목사가 최근 부임한 개척교회. 13교구를 맡아 시무하셨기에 13교구 식구들을 대표하여 더욱 반가운 마음이 앞섰다. 진영 신도시에 자리한 교회는 성인 교인 30여 명, 학생들 40여 명이 모여 예배드린다고 한다. 주변에 식당들이 하나 둘씩 들어서면서 교회는 상가의 중심이 돼 있었다. 여전한 노현상 목사님과 사모님, 오정수 장로님과 조정식, 박정선, 이계홍 장로님과 장석남 목사님, 주동재 집사와 교구 임원진들은 서울교회와 교구가 마련한 정성을 헌금함에 넣고, 단아한 생명숲교회 성전에서 '이 성전을 통해 진영과 이 곳 진해의 심령들이 주님의 은혜로 생명숲으로 울창하게 성장하기를 기도하면서 따뜻하고도 살가운 회포를 풀었다.



건축중인 강진 반석교회 원로목사님과 함께



생명숲교회에 서울 교회와 13교구가 후원하다



노현상 목사가 시무하시는 생명숲 교회

# 교회 소생 (Church Revitalization)

한국기독교학술원(원장 이종운 목사, 서울교회 원로)은 20일 오후 2시,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교회 소생 (Church Revitalization)'을 주제로 제 43회 공개 세미나를 열었다.

이종운 목사는 "오늘 한국교회는 자랑할 만한 행위도 있겠으나 실상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 때문에 심한 책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 종교개혁 이래 가장 부패한 교회라는 오명이 붙은 한국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자랑할 때는 아니라고 사료되어 하나님께 애소하는 심정으로 이번 세미나의 주제를 '교회소생'으로 정하였다."고 이번 세미나의 주제에 대해 언급했다.

기독교학술원 부원장 이수영 목사(새문안교회 담임)는 경건회 설교를 통해 "교회 소생은 참된 예배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께 드러지는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이어야 한다. 말씀 중심의 예배란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라는 말이 아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비본질적 요소로 채워진 예배는 개혁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세미나의 발제는 권성수 목사(대구동신교회 담임)와 정장복 박사(장신대 명예교수)가, 논찬은 왕대일 박사(감신대 교수)와 오영석 박사(한신대 명예교수)가 각각 나섰다.

'교회 소생의 성경적 논거'를 주제로 발제한 권성수 목사는 "소생이란 죽은 것을 전제로 한 단어이다. 한국교회는 풍요 속에서 번영할 것이라는 자장가를



들으며 잠들어 있다. 그러나 의 전통과 정신은 서서히 그 흔적을 감추었다."고 진실상 한국교회의 모습은 첫 사 단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유창한 커뮤니케이션 기술 랑을 상실하고 부만 자랑하며 이 가득하고 신학적인 바탕이 풍부해도 누가 설교하 정통과 정행을 악용하고 세속 느냐에 따라 설교의 성패가 갈린다."며 "설교의 내용 과 타협하고 있다. 목회자는 보다 설교자가 중요하다. 설교는 머리에 있는 지식과 성도들에게 예리한 책망을 마 자기 경험을 내뿜는 데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 다하지 않아야 한다. 철저한 한 설교는 맑고 충성되고 성실한, 그리고 영력이 가득 회개와 철저한 훈련과 철저한 한 사람이 할 때 더욱 감동적인 것이 된다."고 역설했 윤리의식을 가지고 성령의 능 다.

력을 힘입어 오직 말씀에 의지해야 한다. 말씀, 곧 주님의 생수는 인격의 내면에서 솟구치면서 외부로 흘러가 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그 본질이다."라고 했다.

이에 논찬자로 나선 왕대일 박사는 발제자가 말하는 한국교회 소생에 대한 처방의 궁극적 좌표는 사람이 이루는 변혁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시는 변화에 복종하려는 결단으로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생명의 신앙, 생명의 신학, 생명의 교회, 생명의 목회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교회를 다시금 강하게 부르짖는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 발제자 정장복 박사는 '교회 소생에서 복음설교의 동력적 역할'을 제목으로 "한국교회 초기는 신학적 체계는 없었지만 십자가의 도를 바로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데 모든 초점을 두어 민족의 구원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이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설교 사역은 탈선하고 퇴락하여 이제는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설교

**종교개혁 이래 가장 부패한 교회라는 오명이 붙은 한국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자랑할 때는 아니다**

이날 기독교학술원 이사장이인 이흥순 장로는 인사말을 통해 "책임을 느끼는 사람만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인상적인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단지 목회자만 한국교회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오고 오는 세대에 건강한 교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취재: 허숙 권사(편집부), 사진 윤요섭 집사



## 2013 흥해작전을 준비하며

# 와서, 네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라



송인연 집사 (흥해작전 차장)

2013년 흥해작전이 6월6일(목) 23번째 개전을 시작합니다. 25일(화)까지 계속되는 이번 흥해작전의 주제는 "와서, 네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라"며 풍성한 말씀을 선포하실 특별 강사로는 총신대학 구약학교수인 박철현교수님이 6월 6일(목)부터 14일(금)까지, 박도철 담임목사님께서 15일(토)부터 25일(화)까지 담당합니다. 서울교회와 역사를 같이 하는 흥해작전은 택한 주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시고, 흥해를 열어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합심하여 조국의 안전과 복음화, 서울교회와 한국교회의 부흥, 가정과 개인의 기도제목을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흥해도 믿음으로 건너고자 하는 '말씀과 기도운동'입니다.

주제구절의 '하나님의 지팡이'를 NIV영어성경에는 'The Staff of God'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스태프(Staff)를 '직원, 참모' 등의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스태프(Staff)'을 '하나님의 참모(직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13년 흥해작전을 통하여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국가와 교회, 개인의 흥해를 믿음으로 건너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스태프'이 되기를 소원 합니다.



살롬경로대학

# 내 부모님을 모시는 심정으로



손태현 집사  
(살롬경로대학교사)

살롬경로대학 26학기가 10주차 청남대 여행하는 마지막 수업까지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난주 8층 만나홀(식당)에서 작품전시와 함께 아름다운 영상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는 “가장 복음적이며 가장 즐겁게” 하자는 목표로 부장이하 저희 교사들은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부족하지만 내 부모님을 모시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매 주 수업에 앞서 가진 경건회에서는 저희들의 초대에 기쁜 마음으로 달려 오셔서 특송을 불러주신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어버이날 즈음하여 트럼펫 연주와 독창 공연, 해금 연주를 대학에 출강하시는 우리교회의 여러 선생님들이 기꺼이 나와 주셔서 다채롭고 수준 높은 경로대학으로 빛내 주실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활동에 초빙된 전문 강사의 레크리에이션과 음악반, 생활체조반,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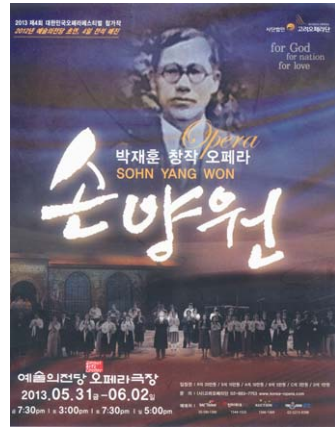
이접기반과 풍선아트반, 신설된 중국어회화반, 각반의 다채로운 실력이 다 막강했지만 특별히 중국어회화반에서 공부하시는 어르신들은 중국어로 노래하며 춤까지 추시며 이제 마치 어린학생이 된 것처럼 만학의 열정으로 행복해 하시는 어르신들은 걸 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생동감 넘치는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화창한 봄날만큼이나 화사하신 권사님들은 청남대여행에서 젊음을 회복 하신 듯 사진 찍기도 즐겨하셔서 사진 봉사도 너무 보람되었고 이 모양 저 모양의 헌신적인 섬김으로 교사들의 열정과 아름다운 연합에 하나님께서도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개강 때보다 인원이 많이 늘어 다음 학기에는 더 알차고 새로운 강좌와 야외예배 답사를 지금부터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해주신 많은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온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박재훈 목사 창작 오페라 손양원 5.31(금)~6.2(주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박재훈 목사 창작 오페라 ‘손양원’이 5월 31일(금)부터 6월 2일(주일)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2013 제4회 대한민국 오페라페스티벌 참가작으로 공연된다. 2012년 예술의전당 초연시 4일 전석 매진된 바 있었던 오페라 ‘손양원’은 초연보다 더욱 감동적이고도 새로워진 곡들이 추가되었다. 우리교회는 오페라 ‘손양원’ 후원교회이므로 전 좌석 30% 할인된 금액으로, 오늘 사무국에서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

### 동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28일(화) 미래한국 미디어이사회에 참석한다. 6월1일(토) 사랑의 쌀 운동 조찬기도회와 몽골 울란바타르 대학교 이사회 설교를 한다.
- 개업: 1교구 김경순4성도 눈꽃빙수 Cafe the Snow "행복에 들" (경희대학교 앞)
- 개업: 4교구 전정숙 권사 <우리동네 미미네> 신세계스타수퍼점. 삼성타워팰리스 지하층. 02-2191-1277.
- 득녀: 3교구 이민광성도, 원혜리성도
- 주간식당봉사: 베드로선교회(5.26) 바울선교회(6.2)
- 금주의 식사: 임옥근 집사 박영자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교회제공

### 해병대 신병 진중세례식/성찬식 거행 6월1일(토) 오후 2시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 교회에서

군복회화를 통하여 민족을 복음화하기 위한 해병대 신병들에 대한 진중세례식 및 성찬식이 우리교회 비전 2020운동본부(부장 이갑진 장로) 주관으로 오는 6월 1일(토) 오후 2시에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 교회에서 거행되며, 박노철 담임목사가 설교한다. 당일 오전 6시 50분에 교회에서 출발한다. 성도들의 깊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교회 지하주차장 공사 중

우리 교회 지하주차장의 노후로 인한 바닥공사가 진행 중이다. 5월31일(금) 16시까지 지하 1,2,3층 지하주차장을 전면 폐쇄한다. 불편하더라도 성도 여러분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교회에 오기를 바란다. 주중 쓰레기 분리수거가 불가하므로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는 적극 협조 바란다.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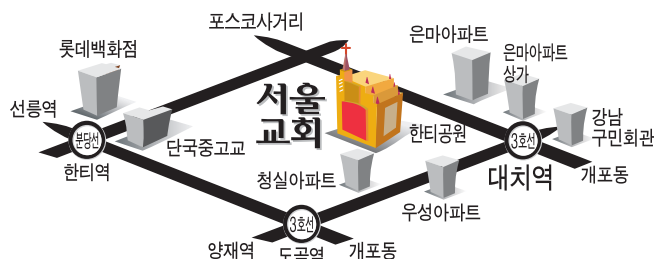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103년도에 피택 되신 모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안수집사님들이 사랑과 겸손으로 더욱 아름답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2. 6월 6일부터 시작되는 홍해작전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큰 은혜를 받으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3. 우리교회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청년 1부, 2부, 3부 모든 다음세대들이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도록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아용시용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 교회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